

여수서 멜라민 양어 사료 1t 수거

뉴질랜드산 원료 쓴 분유서도 검출
 ‘멜라민 공포’ 먹거리 전반에 확산

여수의 한 우육양식장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양어 사료가 발견된데 이어 멜라민이 검출된 뉴질랜드산 분유 원료가 국내 유명업체의 분유 및 이 유식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멜라민 공포가 먹거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남도는 2일 여수시내 우육 양식장 한 곳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양어 사료 1천28kg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멜라민을 함유한 양어 사료가 수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여수와 광양, 화순지역의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리

츠 샌드위치 크래커치즈’와 ‘모카 카페테리아’, ‘고소한 쌀과자’ 등 멜라민이 검출된 3개 품목 68kg을 수거·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내 22개 시·군에서도 멜라민 함유 검사가 진행 중인 314개 품목 1천443kg의 제품을 봉인해놓은 상태다.
 특히 축산사료의 경우 관련업체 53곳에 대해 점검을 벌였으나 멜라민 양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미 유통과정을 통해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도 이날 현재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 5.8kg을 수거·폐기 처분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428개 품목에 포함된 제품 545kg을 현장 봉인 조치했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뉴질랜드 타투아 협동조합 낙농회사(타투아)의 락토페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분유 및 이유식이 현재까지 12개 품목에 이른다고 이날 발표했다.
 식약청은 앞서 1일 뉴질랜드 타투아사의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이 회사로부터 락토페린을 수입한 업체 7곳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한 결과 남양유업과 파스퇴르유업이 수입한 원료에서 멜라민이 각각 3.3ppm과 1.9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타투아사의 락토페린을 사용한 5개 유가공업체의 제품 40건을 수거해 그

가운데 19건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타투아사가 만든 락토페린을 수입한 업체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유업, 성풍양행, 씨엔엘상사, 진성에프엔비 등 7곳이며 이 회사의 원료로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조한 업체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 비락 등 국내 5개 주요 유가공업체가 망라돼 있다.
 생후 10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회사원 김모(31·여)씨는 “분유 원료에서 멜라민이 나왔는데 제품에서는 검출이 안됐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분유조차 믿고 먹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노인의 날’ 위안 공연 ‘제12회 노인의 날’ 행사가 2일 광주시 남구 시민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노인들이 위안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시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모범노인, 노인복지 유공자 등에 대한 정부 포상·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융구제안 美 상원 통과 ... 환율 5년만에 최고치

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1일(현지 시간) 상원을 통과했음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미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및 예금 보호확대 확대, 1천1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조항 등이 포함된 법안을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가결했다.
 상원의 구제금융법안은 이승 철자를 거쳐 3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의 구제금융안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통과

됐음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0.09포인트 하락한 1천419.65로 마감됐으며, 코스닥 지수도 8.85포인트 내린 432.10으로 마감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최진실 자살

자택 욕실서 목매 ... 경찰, 부검 실시

최근 ‘사채업 괴담’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톱 탤런트 최진실(40)씨가 2일 오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련기사 5·6·14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이날 “최씨가 어제 오후 매니저와 술을 마시

고 1차 결론을 내렸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체 관련 악성 루머가 최씨의 유력한 사망 동기라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괴담 유포자 등을 발본색원해 처벌하기로 했

보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야~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와 XX를 잘 부~”라고 말했다. ○○와 XX는 최씨의 자녀 이름으로 문자메시지의 맨 마지막 단어인 ‘부’는 ‘부탁한다’를 미처 다 쓰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이들 잘 부탁해” 문자 메시지 최근 안재환 관련 루머 시달려

고 오늘 새벽 0시께 귀가해 어머니에게 ‘사채업 소문 때문에 괴롭다’면서 울었다”며 “안방에 딸린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오전 6시께 욕실에서 숨진 채 어머니에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사위끼리 폭력에 압박 봉대를 감고 이를 자신의 목에 되감은 상태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일단 “평범한 자살”이라

다. 경찰은 최씨가 사망 직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 성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친하게 지내던 메이크업 담당자 이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새벽 0시42분께 메이크업 담당자 이모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에 마련된 최씨의 빈소에는 유족들과 절친한 연예인들의 오열로 가득했다.
 최씨는 지난 1988년 데뷔한 이래 한국을 대표하는 톤트리로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해 드라마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의 흥신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민주당, 조선산업 지원 적극 나선다

광주·전남 주요 사업 지원 ‘5개 특위’ 구성

전남지역의 신성장동력이면서 수도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2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전남지역 조선소들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당내에 구성해 어려움을 겪는 조선소들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정부 들어 호남고속철 조기 개통과 J프로젝트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관련 사업 지원 특위로 함께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을 위해 구성되는 지원 특위는 가칭 ▲전남

조선소 지원 특위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지원 특위 ▲J프로젝트 지원 특위 ▲광주 R&D 특구 지정 지원 특위 ▲첨단의료융복합단지 조성 지원 특위 등이다.
 당 지도부는 또 호남권별 아니라 기타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특위를 구성, 집중적으로 사업 추진을 정부에 요구·감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호남지역 현안 사업과 주요 산업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이슈가 다양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관련 상임위나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원 특위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

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으로 전남지역 성장 산업뿐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가능성이 커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기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망학원 상원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는 1953년 설립된 이래 5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과학대학
 전남과학대학은 1981년 설립된 이래 27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뮤지컬 시카고**

10.3~10.5 광주문화예술센터 대극장

CHICAGO